

무등산 자락 국악 한마당, 사계를 수놓다

●전통문화관 2024 토요일상설공연 라인업

오는 13일 국악창작 '케이소리' 시작으로 산조·연희 무용·무형문화재 무대 등 '다채'

“토요일, 토요일은 전통문화관에서 놀자!”

광주문화재단 전통문화관이 2024 토요일상설공연 작품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 13주년을 맞는 토요일상설공연은 누적 관객 수 10만명을 돌파하며 광주 대표 전통 상설 공연으로 자리잡았다.

2024 시즌은 '시민이 있는 문화·예술'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및 함께 누리는 문화포용 서비스 제공을 사업 목표로 삼아 여가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시민의 토요일을 전통예술 공연과 체험으로 책임지는 상설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통 전문예술가(단체) 판소리·산조, 국악창작, 연희·무용 21팀과 광주시 무형문화재 전수자 9명 초청 공연 등 매우 다양하고 특색 있는 주차별 주제형 공연을 펼친다.

올해 토요일상설공연 첫 시작은 오는 13일 국악단체 '케이소리'가 준비했다. 매일 첫째주는 판소리·산조 무대다.

오다나·박정진(6월4일), 주현주·성유미(6월11일), 김다정·하은비(7월6일), 강완규·이은숙(8월3일), 신혜인·정민조(9월7일), 김근희·정인선(10월5일), 소민영·홍윤진(11월2일) 팀이 출연한다.

매일 둘째주는 국악창작 무대로 '케이소리' 공연을 시작으로 예락(6월11일), 창극프로젝트 소리치다(6월8일), 국악콘텐츠제작소 나랩(7월13일), 부나비즈(8월10일), 타악집단지우(9월14일), 도도소리(10월12일)가 나선다.

그리고 매일 셋째주는 예술단 다드미(4월20일), 연희예술공간 타놀(6월18일), 나르샤 이남치(6월15일), 콘서트댄스 컴퍼니(7월20일), 돌음무용단(8월17일), 서울경기춤연구회(9월21일), 풍물세상 굿패마루(10월19일)가 연희·무용 무대를 꾸민다.

마지막으로 매일 넷째 주·다섯째 주는 무형문화재 무대로 꾸며진다.

오는 27일 방성춘 동초제 춘향가를 시작으로 최연자 강산제 심정가(6월25일), 이순자 춘향가(6월22일), 황승욱 가야금 병창(6월29일), 문명자 가야금 병창(7월27일), 용전들노래보존회(8월24일), 광주전통불교영상학회(8월31일), 김신아 동초제 흥보가(9월28일), 이영애 가야금 병창(10월26일)까지 총 30회의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2023년 토요일상설공연 모습

<광주문화재단 제공>

이와 함께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전통문화관 솟을대문, 너털마당에서는 (사)전통연희놀이연구회와 함께 하는 '고구려 벽화 속 연희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5세기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에 담겨있는 다양한 연희를 시민들과 함께 체험해본다.

2024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은 오는 13일부터 11월2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0회 공연을 진행한다. 전통문화관 토요일 상설공연은 연령제한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 가능하다.

/최명진 기자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모집

대동문화재단, 19일까지 국내외 대학(원)생 대상

(사)대동문화재단이 2024년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로 활동할 청년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

문화재청과 (사)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사업은 우리나라 유네스코 유산의 효과적인 보존·활용을 도모하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국 유네스코 유산을 가꾸고 보호하는 문화전파를 위해 마련됐다.

내·외국인 대학(원)생 총 120명(4인 1팀 구성, 총 30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열

정으로 한국의 유네스코 유산을 보호하고, 그 속에 담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다.

잠정 목록을 포함해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를 선정,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활동에 나선다.

▲유네스코 유산 정책기획, 교육·홍보, 보존관리 등 활동이다. 활동을 위해 문화재청은 팀당 총 200만원의 활동비(1인 50만 원)를 지원한다.

/최명진 기자

북구,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서비스

결혼이주·고려인 여성 대상...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 가능

광주북구가족센터가 다문화가정 산모돌보미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한다.

서비스 신청대상은 광주시 거주 및 등록된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 산모와 광주시 거주 및 등록(거소신고)한 고려인여성 산모다. 서비스 기간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출산 후 60일 이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저소득 및 취약가정을 우선 선정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해산급여와 산모돌보미서비스 중 한 가지만 신청 가능하다.

산모돌보미 파견은 한 가정당 70시간, 1일 5시간 이내로 백일해 예방접종 후 산모와 신생아 양육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용료는 무료이며 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북구가족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062-363-2963)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 기자



장희구 박사 (5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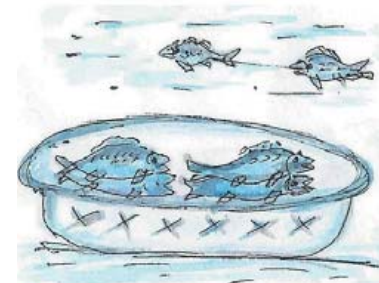
漢詩 향기품은 번안시조

還目魚(환목어)[3] - 택당 이식

目也適登盤 頓頓療晚飢(목아적등반 돈돈료만기)
勅賜銀魚號 永充壤奠儀(칙사은어호 영충양전의)

목어가 마침내 수라상에 올라와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드렸는데
그러자 은어 이름에 특산물로 정했네.

임금님께서 '은어'(銀魚)라는 이름 하사하고 특산물로 정했네



전쟁이 끝나고 선조가 대궐로 돌아와 도루묵의 맛이 생각나서 수라상에 들게 했다. 수라상에 올려진 고기 맛이 입에 맞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걸 맛이라고 내가 그때 감동을 했었나 싶어 "생선 이름을 도로 '목어'라 해라" 했다는 데서 '도루묵'이 되고, 음이 변해 '도루묵'이 됐다는 이야기다. 은어를 도로 목어라 한 은환위목(銀還爲木)의 사연이다. 목어가 마침내 수라상에 올라와서,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드렸다면 서 읊었던 시 한 수를 번안해 본다.

임금님께서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고(還目魚)로 제목을 붙여 본 율(律)의 오언율시풍인 3수다.

작가는 택당(澤堂) 이식(李植:1584-1647)으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1632년까지 해서 대사간을 3차례 역임했던 인물이다. 사친의 추숭이 예가 아님을 논하다 인조의 노여움을 사 간성현감으로 좌천되기도 했다. 1633년에는 부제학을 거쳐 1638년 대제학, 예조참판, 이조참판을 역임했다.

위 한시 원문을 의역하면 '목어가 마침내 수라상에 올라와서 /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드렸지 // 그러자 임금님께서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 길이가 고을의 특산물로 바치도록 하시었네'라는 시상이다.

위 시제는 '임금님 돌아가자 다시 목어(目魚) 되었네'로 번역된다. 도루묵이 맞은 없지만, 겨울철 술안주쯤으로는 그런대로 괜찮다는 뜻을 피력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어려웠을 때, 임금님이 이곳에 오셨다는 시상을 때만지면서 시심의 겸음겸이를 잠시 멈췄을 것이다.

시인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른 반찬을 생각했던 신하의 도리를 갖고 지극하게 염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목어가 마침내 임금님 수라상에 올라와서, 때마침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드렸다고 했다.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곳까지 뭉신을 나왔다면 그 또한 배가 고팠을 것은 뻔해 보인다.

화자는 임금님 고기의 이름이 없자 섣달 고기의 새로운 이름을 하사하게 됐다는 시상 주며, 그러자 임금님께서 '은어(銀魚)'라는 이름을 하사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특산물로 바치도록 하명(下命)했다고 했다. 특산물이라면 그 고장 생산물을 대표한 이름이리라. 이어지는 4수에서는 '난리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 / 수라상에 진수성한 서로들 뽐낼 적에 // 불쌍한 이 고기도 그 사이에 있었는데 / 맛보시는 은총을 한 번도 못 받았네'라고 했다.

<시조시인·문학평론가(사)한국한문교육연구원 이사장>

*한자와 어구

目也: 목어. [也]는 의미 없는 어조사. 適: 마침. 登盤: 수라상에 오르다. 頓頓: 든든하게 하다. 療: 병을 고치다. 晚飢: 늦게 주리다. 곧 허기진 굶주림. // 勅賜: 조서하여 하사하다. 銀魚: 은어. 號: 이름을 부른다. 永充: 길이 채우다. 壤奠: 특산물. 奠儀: 바치다. 정성으로 임금님께 올린다.

CBS가 한국교회와 함께 기후·생명 회복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 기후·생명 회복 위한 <환경주일 목회서신·공동기도문> 채택
- 창조질서 회복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캠페인 확산
- 기후난민공동체 지원 사업 전개
-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생태보존 교육 실시

CBS, (사)푸른아시아, 한국교회 15개 주요 교단, 환경부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 기후·생명회복을 위한 생명의 숲 조성 운동본부 출범' 2022. 4. 26